

동네서점 무료대여 ‘바로북’ 급성장

익산시, 그림책방 씨앗 · 원보대서점 신규참여... 총 8개소로 늘어 월평균 이용객 81% 증가

익산시의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가 시행 1년 만에 급성장하고 있다. 도서관에 없는 경우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바로북 서비스가 6월부터 참여서점을 확대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서점은 그림책방 씨앗 원보대서점으로 총 2개소이며, 이에 따라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이 기존 6개소(대한서림 영등점·중앙점, 동아서점 모현점·영등점, 원서점 호남문고)에서 8개소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시행한 바로북 서비스는 시민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빌려본 뒤 해당 서점

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반납된 책은 시에서 구입해 도서관 장서로 활용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운영 1년 만에 이용객이 2배에 육박하게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첫 서비스 기간 이후 7개월 동안 1.875명의 시민이 2,574권을 올해는 5월말 기준 2,437명이 3,078권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268명에서 올해 487명으로 81% 증가했으며 도서대출은 지난해 월평균 368권에서 올해 616권으로 67%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은 통상적으로 인기 있는 신간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면

최소 2~3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거나 서점에 책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이다.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신청하고 책이 준비되면 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서점에 방문해 대출하면 된다.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한 도서는 14일 이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바로북 서비스는 지역 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쉽게 읽을 수 있어 독서 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시장 직속,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 소외 않도록”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벌여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시장 직속,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힘썼다. 정영미 의원은 “2022년 익산역 광장에 설치되었던 마룡이 인형이 짧은 MZ세대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익산시 대표 문화관광 홍보대사인 마룡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경숙 의원은 “구 익산세무서 부지가 비라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전락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적극적인 대

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미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이 심해지며 공무원을 동원한 위 어짜기식 모금 행태를 다른 언론의 지적이 많다.”며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진규 의원은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의 신고접수현황이 유독 부족하다.”며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용 의원은 승진 인사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고충을 토로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에 있어서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종현 의원은 “남산 폐석산 주변지역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남산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한마음으로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제’ 추진

평생학습 포인트 적립... 지역 내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수강생에게 도서구매가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제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출석과 봉사, 체험 및 행사참여 등 활동내역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수강생은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 내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시는 행복포인트제를 통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동기부여는 물론 평생학습과 독서를 아우르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군산의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 적립 방법은 군산시평생학습관 수강신청 후 행복 포인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수강생에게는 포인트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군산지역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도서교환이 가능한 서점은 한길문고, 예스트서점, 양우당 마리아사, 리투서점, 조용한홍분책 등 6개 서점이며 도서교환 후 잔여 포인트는 소멸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서점들과의 간담회, 군산시 평생학습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및 개선방안 수립 등 사업추진을 위한 민변의 준비를 마쳤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특색있는 지원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체험관 실감콘텐츠 체험 ‘인기’

익산시 홀로그램체험관이 새롭게 단장해 여름철 방문객 맞이에 돌입했다. 시는 홀로그램 산업에 홍보하고 첨단기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체험관’을 운영한다. 익산역 동문주차장 옆에 위치한 체험관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익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까지 실감콘텐츠 체험을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체험관 내에는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홀로그램 장비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마련돼 있다.

특히 홀로그램 키트 제작 체험은 나무로 된 키트 부품을 체험자가 조립해 본인 핸드폰을 키트에 넣고 직접 홀로그램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모래 위에 홀로그램 영상을 입혀 화산과 공룡이 있던 백악기 시대를 재현한 샌드 크래프트체험은 아이와 어른들에게 모두 인기다. 샌드 크래프트 모래에 손으로 화산을 만들고 구덩이를 파면, 호수가 만들어지고 비구름을 생성해 식물들이 자라면서 초식동물이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기성이 수조 공룡 등 입체적



홀로그램과 AR·VR 체험 콘텐츠 등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여름철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달 체험관 외부에 데크를 조성하고 무더위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 투명·청렴한 의회 모색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반영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예비지급 조례’상에 구급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예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하여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상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 · 카드 일시 중단

군산사랑상품권 시스템 개편으로 4일 동안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6월 12일 자정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기간 동안 지류·모바일·카드상품권의 구입 및 결제가 불가능하고,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은 9일부터 15일까지 중단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진행된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K-Festival 2023 퍼포먼스부문 최우수상

군산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K-Festival 2023 제9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Festival 2023은 축제홍보를 통해 각 지자체가 효과적인 지역 관광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관람객들이 직접 다양한 축제 이벤트에 참여해 전국 축제 정보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일보, 채널A, 동인전람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17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기관 축제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